

지극한 맘으로 '몸·입·뜻' 바르게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9>



미안해요 지울 스님

자연은 그렇고, 인간은 그 속에 담긴 내용 즉, 물질이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것을 넘으면 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할부로 대하면 금이 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삶은 역사나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한다고 큰 소리치지만 실은 자연의 질서에 지배받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그것인 자연이 깨어지지 않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자연이라는 그것의 크기에 지배받고 순응하면서 그것이 큰뜻하게 유지되어 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갠지스강 한쪽에 우담바라 숲이 있었습니다. 여들이 되어 우담바라의 붉은 열매가 가지에 가득 열리면 온갖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숲에는 수천 마리의 앵무새가 살고 있었는데 젊은 앵무새의 왕은 우담바라 열매가 익어서 넘치더라도 필요한 분량만큼만 먹고 그 이상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어지면 나무가 말라죽지 않을 정도로 나무의 씨앗이나 잎을 씹어 먹고 갠지스 강 의 물을 마시며 만족하였을 뿐 결코

떠날 수가 있었나?"

백조는 앵무새왕의 말에 감동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도타운 우정입니다. 우정을 가르쳐준 너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 너는 뭘 원하니?"

"우리의 바람은 이 나무가 되살아나는 것뿐이야. 그 이상은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앵무새의 이 말을 듣자 백조는 곧 제석천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갠지스강에서 물을 길어와 바스라진 우담바라 나무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나무는 금세 생기를 되찾았으며 순식간에 가지를 펼치니 푸른 잎이 무성해지고 붉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을 보며 앵무새들은 좋아 어쩔 줄 몰랐고, 제석천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목숨이 있는 자라면 모두 이같이 앵무새왕의 마음을 닮아야 하리라."(자타카 429번째 이야기)

저는 바로 며칠 전에도 KTX를 타고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KTX를 탔을 때는 그토록 멀게 느껴졌던 부산을 3시간 안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바로 위에 있는 밀양까지 강 의 때문에 몇 번 연속적

자연과 살고자 배고픔 견딘 앵무새의 마음 조금이라도 닳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제석천은 감동하여 시험해보려고 신통력을 부려서 우담바라 나무를 모조리 말라죽게 하였습니다. 땅에는 가루처럼 부서진 나무들이 산더미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앵무새들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새들은 나무의 가루를 먹고 강물로 허기를 달래었습니다. 그래도 새들은 숲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제석천은 백조로 모습을 바꾸어 숲으로 내려가 앵무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추위에 강한 우리도 강추위에는 먹을 것을 찾아야 살던 곳을 떠난단다. 새만 본래 그런 것이지. 그런데 너희를 보니 먹을 것 하나 없는데도 이 나무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자 앵무새왕이 백조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 나무에 기대어 영명해왔지. 어느 때는 과일과 잎을 먹고 어느 때는 가지에 앉아 쉬며 이 나무와 이야기 나누면서 나날을 보내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우리의 벗이며 피를 나는 친구라고도 할 수 있어. 진실한 친구라면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법 아니겠나? 나무가 말라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급방 이 숲을

으로 타고 다니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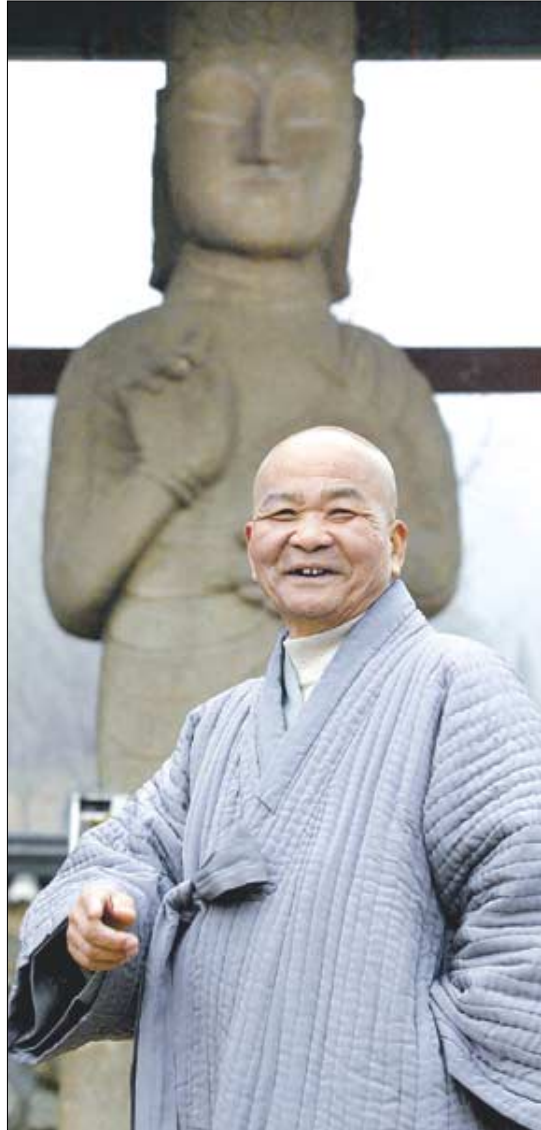
"어쩔 이라도 느릴까. 제 속도 다 내면 지금보다 한 시간은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신속하게 공사를 끝내지 못하는 철도청측이 미련하고 무능하게 느껴진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고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제 이메일에는 천성산을 살리자며 공명(共鳴)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더딘 개발에 분개하였던 경험을 지닌 터라 차마 공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한 사람의 편리를 위해 그까짓 산 하나쯤이야 파괴되든 말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터에 손가락 몇 번 클릭으로 지울 스님의 그 실천에 동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울스님.

지울 스님은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스님께서 어서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려고 굶주림도 감수한 앵무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닳아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이마침(중국경원역경연구원)



의룡스님은 어린시절 미륵당 인연 따라 스스로 '자심련야'라고 이름지를 토굴에서 주석하고 있다. 기나찬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는 미륵당 스님의 미소가 담겼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비난만 말고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 들여봐



의룡 스님

(서울 각황사 조실)

마을 한가운데 서있는 미륵당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거대한(5.6m) 미륵보살(경기도 지정문화재 제37호) 위로 누각이 서있는 곳이다. 논산 관촉사의 미륵불 보다 크기는 다소 작지만 아가자기한 장식이나 기교는 그에 못지않다. 이 미륵당과 이마를 맞대고 있는 초라한 누옥이 스님의 토굴이다. 스님이 '자심련야(慈心蓮若 · 마음을 자애롭게 하는 꽃)'라고 이름 지은 토굴 출입문에는 '처(門)來 莫存知解(이문을 들어오는 이는 알음알이를 모두 놓고 올 것)'라는 경고문(?)이 큼지막하게 써 붙여져 있다. 선을 드는데 불필요한 근심기나 알음알이를 들이지 말라는 선가의 경구다.

요즘 근황을 여쭙었다. "선(禪)도 하고, 경(經)도 보고, 그냥 놀고 지내지 뭐, 허허허. 간혹 이곳저곳 다니면서 법문도 하고, 현대 뭐, 불교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깐...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인데... 허허허. 이젠 책도 내지 않아. 선원들이 다 잘 해 놔는데 내가 써 봤자 표절 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것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 당대의 강백으로 이름 높았던 스님은 이제 일상의 모든 것에서 집착을 놓고 여여한 모습이였다.

의룡 스님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지난해 봄이다. 상좌들의 만류가 대단했지만 기어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린시절부터 동경해 왔던 미륵당의 인연이 스님을 이곳으로 이끈 까닭이다. 스님에게 미륵당은 각별한 곳이다. "사실 이곳 안성은 내 속가 고향이야. 내 외가가 안성인데 왜경 때 이 앞으로 충주까지 다니는 철도가 있었어. 그 시절 할머니랑 기차를 타고 지날 때마다 창문 밖으로 높이 솟은 '미륵당'을 봤지. 그때 이미 몇 훑날 이곳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결국엔 소원을 이뤘지 허허허."

스님의 출가 인연은 특이하다. "내가 어려서 10살이 채 못됐을 땐데 읍을 꿈에서 본거야. 그때 내가 뭐, 시골에서 읍을 보거나 했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읍을 꿈에서 본 거야. 큰 연못 한 가운데서 물결이 일더니 읍이 머리를 내밀고 솟구쳐 오르는 거야. 물이 어떻게냐 맑은지 맑은지 물에 난 비늘 하나하나가 모두 뚜렷하게 그대로 보여. 아! 저게 읍이구나 하며 냇을 놓고 쳐다봤지. 연못가 수양버들 한가운데 난 구멍을 지나 하늘로 올라가는 읍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한편 꿈틀거리며 오를 때 마다 오색구름이 생겨, 마침 뒤에서 긴 머리를 산발한 도인이 나타나 '너 읍 처음 보지?' 하더니 '저렇게 읍이 구름을 만들며 하늘을 오르는 걸 '도운승천(圖雲乘天)'이라고 한다'고 가르쳐 줬지. 그러고는 잠에서 깬 거야. 그길로 용주사로 달려갔지." 스님은 이미 만들어진 구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구름을 의지해 하늘을 오른다는 '도운승천'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린나이였지만 무언가를 이루려는 인물은 시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고 즐기며 결심한 것이다. "그 꿈을 꾸고 내가 용주사에 간 거야. 부모님한테 말도 않고 그냥 무작정 가출한거지. 나중에 2년이 지나서 겨우 집에다 왔었어. 내 법명이 '의룡(義龍)'인 것도 그런 까닭이야. 은사스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출가의 뜻을 말씀드리니 내 법명에 '용'자를 넣어 주셨지. 용꿈 덕분인지 내가 뭐, 대단한 '신통묘용'은 없어도 평생을 강사로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살았어요."

강백으로 일생을 보낸 의룡 스님은 최근까지 작지사 강주소임을 지냈다. 현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3기생 모집

-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인,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화할 불교사상을 널리 퍼서 진정한 불교도를 이루는데 있음.
- 2. 교 과 목**
● 전통의식반(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기초(사물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 연구(제공의식, 현장실습)
- 3. 교육기간 (6개월)**
● 원서접수 : 2005년 2월 14일 ~ 3월 19일 (토요일) ● 개강일시 : 2005년 3월 25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과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 5. 교 통 편 :** 차량운행
- 3. 문 의**
경기북부중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 **신간안내** *****

- 제 목 : 불교법음의식집 · 저 자 : 백설운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중무원 부설 교양대학

화동섬유의 발명특허 제품 특허 제0306046호
지역사 사용

발명특허 **LIHIS LIGGI**

지압효과와 쾌적감을 동시에...

발 갈라짐, 습진, 발냄새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LIHIS 건강지압 양말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국가가 기술력을 인정한 특허제품입니다.
(특허 제 0306046호 획득)

15일정도 계속 사용해 보세요.

※ 관절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팔, 다리 보호대를 권합니다 ※

▶ **정맥환자** 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압매개, 침대요, 카바패드

(주)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3동 2293-1
053)627-1244, 657-1244
www.lihis.co.kr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 2. 무명(여름, 순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솜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 4. 면 목화솜 누비(면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 5. 모직 특수솜 누비(울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매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치어니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기방, 신도용 조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랑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정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아름승복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기 88번지(동심아파트 주차장 내)

장 교직자로 오랜 세월을 보낸 스님은 종단의 승가교육제도개혁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의외로 스님은 요즘 강원교육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요즘처럼 강원 하기 쉬운 때가 어디 있어? 공부하려는 사람이 없어 허허허, 이전처럼 죽기 살기로 공부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요즘 누가 공부하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저 허허허 하고 계속 웃는 듯 했지만 이내 날카롭고 뼈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다.

"조계종은 선종이잖아. 불립문자 견성성불인데 뭐 하러 공부해. 경은 배워서 뭘해. 깨달으면 다 해결되는데, 뭐 하러 경을 봐. 이전 왜 공부 안하느냐고 강사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이전이야 강사라고 하면 예우가 대단했지만, 이전 강사 말을 누가 듣나?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경 안 봐도, 때 되면 다 깨닫는다고 가르친 일부 선대 스님들의 인과응보니 어쩔 수 없지." 스님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윤회를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음을 받아들이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 인과나 윤회로부터 오는 고통을 벗어나는 지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되물었다.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처님 법대로야. 내가 원인을 지어 놓은 대로 지금의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이니, 전생에 받아야 할 빛을 이생에서 주고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적으로 도둑질이나 나쁜짓 하는 사람, 내 주변

단전에서 끌어올린 호흡을 등 뒤로

정수리까지 올렸다 내리기 반복하는

여래선은 망상없이 바로 삼매 들어

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비난만 하지 말고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의 연장이라 생각하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않겠어? 거기서 나아가 현생에 스스로 악업을 삼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방편이 된다면 더 좋겠지. 좋은 원인은 안 지어 놓고 좋은 결과 받으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결국 몸과 입과 뜻(身口意)을 바르게 하는 게 최고의 방편이야.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야 해. 이게 해결되면 삶의 고통도 다 해결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스님은 인도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룩한 '마우리아(Maurya) 왕'의 전생담을 들려 줬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하러 가시는 길에 소꿉 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은 줌으로 놓고 귀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무엇이든지 공양을 올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모래로 지은 밥을 앞드레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 부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는 밧고레 웃으시며 아난에게 '이 모래를 가지고 가서 내 방의 허물어진 곳에 바르도록 하여라' 하시고 말씀하시길, '아이가 환희심으로 모래를 보시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다음에는 국왕이 되어 삼보(三寶)를 받들고 여래를 위하여 팔만사천의 보타(寶樹)를 세울 것이다'라고 수기를 주셨지." 스님은 이렇게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선업 쌓기를 권했다.

스님은 미륵당으로 거처를 옮긴 요즘, 이전보다 더 가행정진중이다. 결보기에는 특별히 바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는 듯하지만 스님의 하루 일과는 이전 도심생활이나 교직에 있을 때보다 더 웅골차다.

동내 북판이라 묵묵대신 죽비로 매일 새벽 5시 미륵당에서 예불을 올린다. 저녁예불은 6시, 예불을 마치면 '나무미륵보살' 정근을 100번하고 경전을 읽는다. 그리고 틈틈이 참선 삼매에 든다.



휴식에 매달린 마른 호박과 매주는 지난 가을 스님이 손수 만든 먹거리다. 평생을 추학 지도에 매진한 스님은 매사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신다.

스님은 드물게 여래선을 뒀다. 간화선 중심의 종단풍토에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스님은 누구보다 여래선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

"내가 보기엔 최상승선은 여래선이야. 여래선은 호흡으로 법문을 돌리는 거야. 법문을 여법하게 돌리면 망상심 없이 그냥 삼매에 들어." 스님은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틀고 시범을 보였다.

"앉은 자세나 손모양은 일반 참선과 똑같아. 심호흡이 제일 중요해 단전에 서부터 끌어올린 호흡을 등 뒤로 정수리까지 올렸다가 앞으로 다시 내리는 거야. 여래선에선 화두는 안 해. '이 뭇고'는 망상이야. 선은 생각이 없게 하는 건데,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그 자체가 망상이지. 대신 호흡하는 그 정신은 계속 따라 다녀야 해.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법문 돌리듯이 '호보강(呼波降·6후), 흠상승(歛上昇·6후)'을 반복해.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몸안의 불기운을 내리고, 물기운을 올리는 법문을 반복해서 돌리면 삼매에 금방 들지."

오래전부터 삼매를 강조해 왔던 스님은 서울 불광동에 '삼매정수선원'을 창건해 제가 불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기도 했다. "스님들이 법문하기 전에 입정에 들라 하잖아. 이 입정이 삼매여, 삼매에 들어가 법문을 들어도 제대로여. 부처님은 중생들을 제도할 때 이 삼매의 힘으로 제도를 했어. 요즘은 이 삼매의 힘이 없기 때문에 법문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마친 스님은 기차와 함께 미륵당을 참배했다. 부처님 열반 후 5십6억7천만 년 뒤, 말법 세상을 구제하려 온다는 미륵보살은 모든 재물을 끌어와 복을 이룬다는 '권오수인'을 취하고 있다.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가난한 백성들이 미륵의 영험을 믿었을까? 불황과 실업으로 침체된 경기 때문인지,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는 요즘이다. 2005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미륵당을 나섰다.

글=조용수기자·사진=박재민 기자



지연 스님의 스님이아기

자광 스님

자광 스님, 그는 늘 웃고 있었다. 개구쟁이처럼 장난꾸러기처럼 웃는 스님의 모습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것이 그의 독특한 모습, 아름다운 그만의 진실한 표정이었다.

스님은 형사 일을 했다. 일을 해야만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는 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루종일 일을 했다. 가만히 두어도 관공을 석축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그 석축을 새로이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고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사람의 손이 가면 또다시 새로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서 변모해 가는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든가.

그는 그렇게 이것저것 손댈 곳 안 될 곳, 건드

자광 스님, 그의 내력은 조금 특이하다. 그의 내력을 여기서 언급하긴 참으로 저어하지만, 우리 불가에선 귀한 법(法)의 소식이기에 전하러 할 따름이다.

스님의 세 형제는 모두 스님이다. 둘째가 원공 스님이고, 셋째는 일공 스님이다. 원공 스님은 불화(佛畵)를 그리기도 하고 조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 자신만의 부처의 세계를 천착한다고 들었다.

막내인 일공 스님은 김천에 있는 직지사포교 당 개운사의 주지를 맡아 한참동안 일하다 지금은 원공 스님이 머물고 있는 경주의 유학사(柳鶴寺)에서 함께 지낸다.

속세에선 별스럽게 가까이 지내지 못했는데, 이제 부처님의 법계(法界)로 들어와 다시 그야말로 정다워졌노라고, 자광 스님은 내게 말하며 그 답지 않게 눈시울을 붉혔다.

자광 스님, 그의 어머님은 유학사에서 둘째 원공 스님과 함께 계시다 얼마 전 지병으로 멀리 회향하셨다. 세 자식 모두 부처님 품으로 보냈

일이 수행인듯 늘 부지런 도량 구석구석 예쁘게 가꾸

으니 그냥 그러하지만, 조금은 허무하다고 하시면서 늘 되뇌어시던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자광 스님은 눈시울을 붉혔다.

중도 자식이거늘, 어찌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자 아니하랴.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어느 날 밤, 동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그는 큰 울음을 울었다고, 짐승처럼 울었다고 했다. 그의 울음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뒷전에 메아리처럼 회향하기를 바란다.

불가(佛家)에선 일찍이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못 중생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지극히 어렵고,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여도 남자로 태어나거나 다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에 가깝고, 설사 남자로 태어난다 치더라도 불연(佛緣)을 입어 입산수도하기란 또한 지극히 어렵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하건대 한 집안에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세 명의 형제가 불연을 입어 입산수도하고 있으니 이 어찌 감탄할 일이 아닌가.

자광 스님의 세 분 형제는 비록 생전의 어머니께 크나큰 효를 저질렀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큰 은덕을 어머니께 배풀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형제가 불문에 귀의하여 큰 법(法)의 세계에 몸담고 있음은 축복이다. 그렇다. 커다란 축복이다.

■ 불화 청량사 주지



그림·문병성

리고 건드리면서 도량의 이모저모를 나름대로 꾸미고 꾸미며, 그것으로 나름의 삶을 꾸려왔다. 벌써 한참이나 지난 이야기다. 자광 스님이 여기 청량산 청량사의 위쪽, 외정량 응진전에서 머물 적 이야기이다. 스님은 건강했고 활달했고 아무런 거침도 없었다.

도량 주변 가꾸는 걸 좋아했고, 조그만 야생의 풀 한포기, 거기서 피어나는 봄의 꽃 한 떨기를 소너처럼 쳐다보며 좋아했다. 그는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스님, 제가 적은 스님이 계시는 토굴에 가서 산죽(山竹) 몇 뿌리와 몇 달걀 계속 피고 진다는 국화 몇 뿌리를 얻어서 심어 놓았어요. 이것들이 잘 자라 꽃을 피우고 또 산죽이 싹을 피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면서 활짝 웃었다. 그, 적은 스님의 토굴에서 가져다. 옮겨다 심은 산죽과, 오래되고 진다면 국화꽃이 지금도 살아서 그의 뜻대로 열린대도 있다고 들었다.

그는 지금 여기 없다. 저 어디 청송 어디쯤의 후미진 한적한 곳에 새로 동자를 틀고 있다고 들었다. 거기서 대추농사도 하고 고추농사도 하고 그러면서 한가롭게 삶을 꾸려간다고 들었다.

30여년 강사 소임... 손수 농사짓고 밭하고 빨래하며 공부

의룡스님은 의룡(義龍) 스님은 1936년 경기도 안성에 서 태어났다. 14살이던 50년에 일해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다. 어려서 출가했지만 절집의 생활과 예법, 경전 공부까지 남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익혀 어른 스님의 총애를 받았다. 탄허, 관음 스님에게 교학을 배우고 35세 되던 해에 '한영-명봉 스님'의 강박을 이어 받았다. 일생을 제방 강원의 강사로 살아온 스님은 2002년 직지사 강주를 끝으로 강단에서 물러났다.

22년 남짓한 '자실란야'에는 스님이 즐겨보는 경전과 불서들이 사방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스님은 비가 세는 지붕을 수리한 것 말고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토굴생활의 모든 것을 손수 해결했다. 작은 텃밭에 심은 깨는 지난 해 소출이 별로였다. 그러나 올해는 더 잘될 것이라고 했다. 휴벽 위로 말린 호박과 손수 만든 매주가 널려있었다.

60년전 처음 출가했을 때나, 지금이나 스님은 여전히 스스로 농사짓고 밭하고 빨래하며 공부한다.

정월방생 황금잉어

삼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합니다. 포교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스님께 업드려 삼배 올립니다.

잉어는 공룡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며, 우리나라의 어느 하천에서도 타 어종과 더불어 살아가는 잉어과의 황금잉어입니다. 또한 황금색은 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른 형실도, 신이당,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가 길상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가 필요한 대중스님들께서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나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주요방법

- 크기는 15cm이상
- 수량은 100마리 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골뱅이비용은 별도부담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H·P 018-690-4985

역학 전문 교육 마스터 과정

수년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학에 관심이 있는 분을 모시고 주지스님 직접강의.

누가 남의 운명을 참부로 말하는가!
교육과 실수를 겸비한 강의의 수요와 동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

- **교육내용** : 명리학, 성명학, 간지체성론, 직업분류, 택일론, 격국론, 용신정법, 신살론, 양장법, 궁합론, 조후용신, 격국용신, 통관용신, 학과 선택론
- **교육대상** : 스님, 교임, 무속인, 역학인, 일반인
- **교육일정** : 매주 월, 화요일 주2회 1일 4시간 3개월 약 100시간
- **개강일자** : 2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정각
- **교 육 비** : 200만원, 교재 6권 무료제공, 자격증수여 보충 교육비 없음
- **등록방법** :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 하셔서 등록비랑 3명이상 단체등록시엔 소정의 할인 혜택드림 교육 준비 관계로 2월 26일 까지 등록 마감형 개인지도 받으실분은 상담요망
- **안내전화** : TEL 054)956-1662 H·P 011-825-1662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387 성불사 (시내버스 608번 다산종점)
사단법인 성불사 부설 역학전문 교육원 원장 주지 혜주 함

전생! 빙의 전문 치유사 교육 마스터 과정!

스님, 교임, 무속인, 법사님, 이것만 배우면 만사 해결!
상담자 본인이 직접 몸속의 영가와 직접 대화 할 수 있으며 제3자를 통하여 영가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언제 죽었으며? 왜 죽었으며? 나이가 몇이나? 환자와 어떤 관계나? 어떻게 죽었느냐? 원하는게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물어보고 직접보고 느끼고 확인 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국제 학술 단체에서 인정하는 정통 학문입니다.

- **교육내용** : 빙의진단, 악령 제압법, 영가 유도법, 영가와외 대화법, 원격 재령법, 연령 퇴행법, 자울 훈련법, 제 점선 방지법, 자기 최면, 타인 최면
- **교육일정** : 7주간 매주 1회 1일 4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 **교 육 비** : 200만원, 교재 무료제공, 실습 태일제공, 빙의 전문 치유사 수료증 수여, 보충 교육비 없음
- **교육대상** : 스님, 교임, 무속인, 법사, 기공사, 역학인, 일반인
- **개강일자** : 2월 25일 금요일, 교육 준비 관계로 2월 22일 까지 등록 마감 합니다.
- **등록방법** :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등록
- **온 라 인** : 농협 731052-51-020063 (예금주: 성불사)
- **상담전화** : TEL 054)956-1662, H·P 011-825-1662 3명이상 단체 등록할 시엔 소정의 할인 혜택 드림 개인 상담 하실분은 미리 예약 바랍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387 미륵산 성불사
사단법인 성불사 부설 전생, 빙의 교육원장 주지 운상